

## 세틀뱅크, 청약경쟁률 309.60대 1기록... 청약증거금 2조4,639억원

- ▶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공모 청약 상황리 마무리... 청약증거금 약 2조 4,639억 원
- ▶ 오는 12일 코스닥 입성...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다짐

<2019-07-08> 세틀뱅크가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청약도 상황리에 마무리했다.

**세틀뱅크(대표이사 이경민)는 4~5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종 청약 경쟁률 309.60대 1, 청약증거금 2조 4,639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공모 배정 물량 28만9,400주에 대해 총 8,959만 8,580주의 청약 신청이 몰렸으며, 증거금은 약 2.4조 원으로 집계됐다.

세틀뱅크는 지난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55,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하 바 있다.

세틀뱅크 측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세틀뱅크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더욱 커져가는 현금 결제 시장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덕분에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공모 청약도 상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세틀뱅크는 상장 후 ▲신규사업투자 ▲해외사업 진출 ▲시스템투자 ▲연구개발 등으로 세틀뱅크만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이사는 "모기업 민앤지에 이어 세틀뱅크까지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장 이후에도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세틀뱅크는 오는 9일 납입을 거쳐 7월 12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